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미주동부동문회는 '2020년 신년하례 및 정기총회'를 13일 오전 11시 임마누엘장로교회에서 개최했다.

# 새 회장에 구자범 회장 연임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미주동부동문회 정기총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미주동부동문회(회장 구자범 목사, 80회)는 '2020년 신년하례 및 정기총회'를 13일 오전 11시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우중현 목사, 85회)에서 개최했다. 작년까지는 5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나, 회칙 개정 등에 따라, 정기총회와 신년하례를 겸하게 됐다. 이날 동문 38명과 사모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개최일이 1월로 변경됨에 따라, 작년 5월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구자범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의 임기가 1월 13일에 종료되어 회장단의 임기가 7개월 만에 끝나게 되었다. 이를 감안한 참석 회원들 모두의 찬성으로 금번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선출을 하지 않고, 구자범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의 유임을 결정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수석

부회장 변창국 목사(81회)가 인도했다. 회장 구자범 목사는 직전회장 이재철 목사에게 감사패를, 총회 장소와 중식을 제공한 우중현 목사에게 입당축하패를 증정했다.

구자범 목사는 사무엘상 23장 1-14절을 본문으로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구 목사는 "아들람 공동체에게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하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일라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회가 힘들고 어려웠어도 예수님만큼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다. 예수님처럼 배신당하지도 않았다. 그런 우

리가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원망할 때가 많았다.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2020년을 시작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한다"는 요지의 설교를 했다.

2부 총회는 회장 구자범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서기 김홍선 목사(89회)의 회원 점명, 회장 구자범 목사의 개회 선언, 서기 김홍선 목사의 전 회의록 낭독, 회계 남일현 목사의 회계 보고, 총무 이윤석 목사의 사업 보고, 회칙 개정, 임원 선거, 신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용규 목사의 폐회 기도도 총회를 마친 후에,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임마누엘장로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나눈 후에 직전회장 이재철 목사(79회)의 진행으로 윗놀이와 경품 추첨이 이어졌다. 참석자들 모두에게 푸짐한 경품과 선물이 주어졌다.

김인환 목사의 폐회 기도도 모든 순서를 마쳤다.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